

제시문 기반 면접

주어진 지문과 문항을 읽고 말로 답하는 면접.

문제에 답하는 사고력·논리력이 중요

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제시문 기반 면접은 사고력과 논리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학생 부 기반 면접과 달리 고교 교육과정의 개념을 활용한 제시문과 문제가 출제됩니다. 인문 계열은 여러 개의 지문과 자료를 분석해 답하는 문항이, 자연 계열은 수학·과학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이 주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실에서 제시문을 받고 답변을 준비한 다음, 면접실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답변을 녹화해 제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을 치르는 대학이 궁금해요.

제시문 기반 면접을 치르는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최상위권이 선호하는 대학의 학생 부종합전형과 일부 의학학 계열에서 실시합니다. 2026학년에는 고려대 계열적합전형,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 국제형·활동우수형이 제시문 기반 면접을 운영했습니다. 자연 계열 전공 선발에 제시문 기반 면접을 활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성균관대 과학인재전형과 한양대 면접형입니다. 이 중 서울대는 2028학년 SNU 역량 평가 면접을 도입한다며 변화를 예고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희망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항 해설뿐 아니라 모범 답안, 출제 의도, 채점 기준까지 담겨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답안을 점검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구조적으로 답해야 하므로 면접고사 전에 모의 면접을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제시문 기반 면접을 단기간에 대비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만큼 평소 관련 역량을 길러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학년 서울대 학생 부종합전형 안내>에서는 각 과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문 계열은 독서 경험을 쌓고 자연 계열은 개념 응용을 연습하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